



남원소방서, 기도 폐쇄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도 폐쇄는 폐로 통하는 통로인 기도가 이물질 등으로 폐쇄되는 현상이며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 초기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응급처치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하임리히법 순서는 △최초 등 두드리기 5회 시행 △호흡 없을 경우 119 신고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 사이에 실시자의 다리를 넣어 환자 지지 등등 뒤에서 환자의 복부를 감싸 안고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며 위치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 안쪽 상방향으로 강하게 당겨주기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기도 폐쇄는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떠, 낚지 등 음식물을 주의해 섭취하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다"며, 기도폐쇄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임리히법 사전 숙지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소방서,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13일,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촉압식 신형 소화기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로,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고,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소화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폐기할 수 있다.

노후 소화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10년)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산면 지사협, 착한가게 27호점 협판식

김제시 금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서효연, 민간위원장 장영종)는 삼성농장(대표 임재철)을 찾아 착한가게 27호점 협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을 후원하며, 모아진 후원금은 공적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와 권익증원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나눔 문화에 동참해 지역단체, 상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농장 임재철 대표는 "삼성농장은 금산면 시목마을에 자리 잡은 기업으로, 금산면민들의 이해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기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운영

'직장인 힐링LIFE-퇴근후 설렘 프로그램' 29일까지 3주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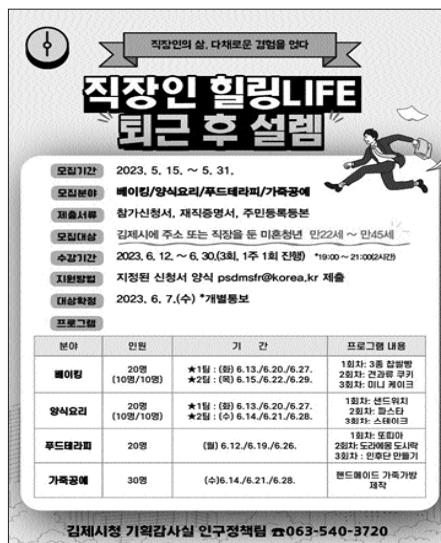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취미클래스 직장인 힐링LIFE-퇴근 후 설렘 프로그램 운영을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직장을 다니는 만 22세에서 만 45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았으며 관내 사업체 및 유관기관 직원, 최초 신청자, 주소지 등을 두루 감안하여 총 94명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청년들이 여가 시간 내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프로그램으로 베이킹, 양식요리, 푸드테라피, 가족공예 총 4개 분야로 6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12일부터 푸드테라피 1회차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강 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식교육, 내 지역 김제 주소 찾기 흥보, 행사 취지 설명, 자기소개 등의 시간을 가지며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이후 2회 교육은 본인이 만든 요리 및 작품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진행할 예정이다.

김숙영 인구정책팀장은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관내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이번 취미 클래스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하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주생면서 포도 재배농가 합동 일손돕기 나서

남원시 주생면과 원예신사업과 및 건축과, 춘향풀농협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주생면 도산리 일원 포도 재배농가를 찾아 일손 지원에 나섰다.

일손돕기는 행정담당부서 간 지원 화합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생면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은 영농철 일순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한 포도재배농가를 찾아 봉지씌우기를 현장에서 작업하고 그 밖에 농가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과수 농기는 "포도 봉지씌우기는 손이 많이 가고 시기를 놓치면 인되어 마을 품앗이로도 벅찬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시간을 쪼개 일손을 도와주니 많은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기숙사 학교폭력 특별 예방교육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12일, 단체 생활로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기숙사형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사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절차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 및 보호인력 등과 학생인도 구축 및 생활지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미약 관련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김진형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위험군 학교폭력 특별예방 교육을 통해 기숙사 내에서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요 농축산물의 선도적인 재배를 위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기여 감사장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 등을 수여했다.

남원의 모 농협 1과장은 2,000만원을 찾으려고 방문한 고객(80대)을 이상하게 여기고 상담 후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한 후 현금 인출을 중지시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